"모두가 대회 성공 이끈 주인공이자 영웅"

김영록 전남지사

전통·예술·미래 어우러진 문화체전
선수들 땀·눈물, 관중들 함성에 빛나
도민·공직자·자원봉사자들에 감사

"모두가 이번 전국체전을 성공으로 이끌어주신 주인공이자 영웅들입니다. 이번 대회가 명실상부한 역대 최고의 국민 대통합과 감동체전으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점에서 매우 기쁩니다."

19일 폐회식 환송사를 위해 무대에 오른 김영록 전남지사는 7일간의 대장정을 무사히 마치며 그 공을 선수, 자원봉사자, 도민 응원단, 도민 모두에게 돌렸다.

그는 이번 전국체전을 통해 쇠락과 침체의 과거를 극복한 전남의 도약과 발전상을 전국민에게 보여주고자 힘썼다. 전남의 저력과 도약·발전상을 개회식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주문한 것도 이러한 의도였다.

"대체할 수 없는 전남의 전통문화와 자연자원, 전남도가 최선을 다해 구축하고 있는 우주항공·신재생·수소 등 최첨단 산업 시스템을 한 번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를 스토리로 엮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박명성 감독이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김 지사는 7일간 최선을 다해 대회를 운영해준 전남도와 목포시 공직자, 시·군 관계자, 전남의 훈훈한 인심을 널리 알려준 2만명에 이르는 도민응원단, 자원봉사자에게 각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모두가 화합하고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묵묵히 현장에서 도와준 도민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들 덕분에 남도의 전통 문화 예술과 미래 비전이 어우러진 문화관광체전, 미래희망체전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스스로의 자긍심도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는 '생명의 땅 전남! 함께 날자 대한민국' 대회 슬로건처럼 이번 전국체전을 통해 앞으로 전남도가 에너지 신산업과 첨단산업의 허브이자 글로벌 해양관광의 메카로 나아갔으면 한다는 소망을 밝혔다.

김 지사는 폐회사를 통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남도민 여러분 우리 선수들의 뜨거운 땀과 눈물, 관중들의 열띤 응원과 함성 속에 빛났던 이번 전국체전은 온 국민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며 "전남을 환히 밝혔던 성화는 세계가 주목하는 남해안 시대의 동반자, 경상남도에서 다시 타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특별취재반

"호남의 예술자원 활용해 '전국藝전'으로 만들었죠"

개·폐회식 연출 박명성 총감독

"이번 전국 체전이 '전국예(藝)전'이 될 수 있겠다는 상상력을 개·폐회식 컨셉에 자연스레 녹였습니다. 드론 쇼, 전통공연, 특수효과 등이 어우러지는 대화합의 장에서 예향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랐죠. 전국 체육인들과 전남도민 등이 하나 되길 축원하는 의미도 담았고요."

19일 목포종합경기장에서 만난 제104회 전국체전 개·폐회식 박명성 총감독은 마지막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선수들의 입상 현황을 소개하고 성화를 끄면서 체전 성료를 알리는 통상적인 폐막식과 달리 '전국 예(藝)전'을 기치로 내건 이번 폐막식은 박현빈·소찬휘 등 대중가수를 초청하고 레이저, 드론 쇼와 전통 공연 레퍼토리를 마련해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해남 출신인 박 총감독은 지난 1982년 연극 배우로 문화예술계에 입문, 40여년 간 무대감독 등을 역임했으며 다양한 뮤지컬을 무대에 올려온 신시컴퍼니를 창단하고 이끌었다. 또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개·폐회식, 2017년 FIFA U-20 월드컵 개막식 등 굵직한 행사들을 연출하며 역량을 발휘해 왔다.

"호남이 갖고 있던 전통문화와 예술자원은 그동안 고루하게 치부돼 온 것이 현실입니다. 미래 콘텐츠와 전통을 조화시켜 녹색 땅 전남의 뿌리까지 뒤흔들고 싶었습니다."

몇달 간 서울과 광주를 오가며 개폐회식 준비에 정신이 없었다는 그는 '극성 기아타이거스 팬'으로 정보석 배우, 선동열 감독과 야구 친구라는 말도 덧붙였다.

"개폐회식 무대를 잘 마련해 체전을 찾아주시는 시민들이 만족하고 가시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104회 전국체전의 성화는 꺼졌지만, 박 총감독의 임기는 전국장애인체전이 끝나는 다음 달까지다.

/특별취재반

전남의 매력 '빵빵'하게 '빵 꾸러미'에 담아 인기

전남도 대변인실 아이디어

대전 성심당, 군산 이성당, 광주 궁전제과, 목포 코롬방 제과점.

언제부턴가 여행자들의 필수 방문 코스가 된 곳이 빵집이다. 아예 작정하고 '빵지 순례'에 나서는 이들도 있을 만큼 오래된 빵집은 그 역사성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빵집은 참신함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19일 막을 내린 제104회 전국체전에서도 '빵'이 화제에 올랐다. 완도 전복빵, 해남 고구마빵 등 전남 각 시·군의 특산물을 활용한 특화빵들을 한꺼번에 맛볼 수 있는 '특화빵 꾸러미'〈사진〉가 인기를 모으며 관람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풍부한 농산물과 해산물을 생산하는 전남은 이를 활용해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빵'은 종류도 다양하고 인기도 높다. 여수 삼합으로 유명한 갓김치·문어·돼지고기를 빵 속에 넣은 여수 삼합빵, 신안 대파카스테라, 목포 목화솜빵, 여수 갓버터도나스 등 68개 업체에서 98개가 넘는 제품을 만들고 있다.

재치 넘치는 빵꾸러미와 관련한 아이디어를 내고 준비한 이들은 전남도청 대변인실 직원들이었다. 전남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명 특화빵을 한꺼번에 알리고, 향후 전남의 대표 기념품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에서 꾸러미를 준비했다.

'전국체전 성공개최는 전남의 매력 홍보입니다'라는 글귀가 적힌 박스 안에는 고흥 유자빵, 영광찰보리빵, 화순 바나나기정떡, 강진 황가오리빵, 곡성 토란 만쥬 등 다양한 빵과 장성 과일컵, 장흥 김스낵, 진도 울금 젤리, 보성 녹차캔 등이 담겼다.

고미경 전남도 대변인은 "이번 체전을 계기로 전남의 특산물로 만든 다양한 빵을 한 자리에서 맛볼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먹거리 꾸러미가 인기를 얻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손님 맞이는 우리가…한마음 한뜻으로 전남 알렸다"

자원봉사자 리더 김명진 씨

"내 고장 전남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난 13일 목포 종합경기장에서 개회한 '제 104회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는 묵묵히 질서유지를 위해 힘쓴 자원봉사자들로 더욱 빛났다.

올해 전국체전에는 4028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경기장을 방문한 선수, 관람객들을 위해 교통정리, 관객 안내 등 질서유지를 맡았다.

자원봉사자 리더 김명진(65·목포)씨는 "지난 45년간 자원봉사 활동을 해왔지만 이렇게 큰 규모의 대회는 처음이다. 전국체전이 우리 지역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원했다"고 밝혔다.

평생 자원봉사를 해온 김씨는 이번 전국체전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목포의 얼굴'이라는 생각으로 임했다.

김씨는 "아침 출근 직후 구역별, 종목별로 자원봉사자들을 분배할 때마다 해산 전에 '안전', '친절', '성실'을 강조한다. 개인의 안전은 물론이고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께 우리 지역의 이미지는 입구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자원봉사자들로부터 시작된다"고 전했다.

또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 체육회와의 협동도 중요하다"며 "전남을 알리기 위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일해서 이번 전국체전이 잘 마무리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202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사업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도움이 필요한 느린학습 아동이 '나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교사가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아동 지원내용
1 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중
인지·학습·정서·사회성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
2 전문인력(현장교사) 양성 및 파견
느린학습자 특화교육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지역아동센터 1개소 당 1명의 현장교사가 파견
3 아동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인지·학습 강화 프로그램(주 2회)
정서·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주 1회)

사업수행체계
지원 | 복권위원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복권기금)
관리·사업수행 | 남부대학교,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사업참여 | 지역아동센터 40개소, 참여아동 160명

아동지원체계
현장교사양성 ▸ 지역아동센터파견 ▸ 아동 프로그램지원 ▸ 사회 구성원의 기본 역량 향상

본 사업은 남부대학교가 광주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지원으로 경계선지능아동(느린학습자)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라는 사회적 가치 제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Gwangju Regional Office Community Child Center
복권위원회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 못 받은 돈 회수 앙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신 용

군산시 수송동
7층(상업지구)매매

840㎡ 바닥628㎡ 대형건물
의료기관4개입주 메디컬빌딩

월 4천만원.
수익률 6.3%
은행 36억5천.보10억

매매가
86억 (현금39억6천만원)

010-3646-8700(직거래)

산행안내
10월21일(토)
▲광주호산회 10월 21일(토)〈제661차 정기산행 문경새재 1.2.3관문 트레킹〉 05시30분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출발 05시 45분 진월동 육교 밑 05시 50분 백운우체국 06시 롯데백화점 06시 15분 광주예술의전당 후문 010-4621-2166, 010-6702-9796 http://cafe.daum.net/gwangjuhosan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